

메신저 대화에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 양상*

: 30~50대 서울경기 여성 화자의 대화를 대상으로

홍미주*

Abstract

Hong miju. (2023). "Phonological Variation in Messenger Conversations-Conversations of Female Speakers in Seoul 30-50s, Korea, in Their 30-50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2), 125-155.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phonological variation in the messenger conversations of female speakers in their 30-50s. In addition, we compared the phonological variation of speakers in their teens and twenties. To this end, we divided phonological variation into replacement, addition, elision, and contraction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messenger corpus and presented the degree of realization using quantitative methods. As a result, we found that replacements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phonological changes in messenger conversations of people in their 30s and 50s, with a large proportion of vowel replacements and a variety of types. Among the vowel replacements, the degree of vowel rising and labialization was high. In addition to the phonological variants in Messenger conversations reflecting spoken pronunciation, we also observed a number of variants that are not realized in spoken language. In terms of age, the types of vowel replacement, consonant replacement, vowel addition, and consonant addition were more varied in the conversations of 30-50 year old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A2A01047104)

* Author: Hong miju, Teaching-stream visiting professor, Office of Education Innovation Polic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41566, Korea; Email: hongmj@knu.ac.kr
Received 15 May 2023; Reviewed 30 May~11 June 2023; Accepted 14 June 2023

while the variation of replacing a plain vowel with a labialized vowel was more active in the conversations of 10-20 year olds.

Keywords: messenger conversation, phonological variation, messenger corpora, quantitative method, compare by age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메신저 대화에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 양상과 특징을 파악하고, 연령에 따른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양상과 정도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메신저 말뭉치 자료 중 서울·경기 지역 30-50대 여성 화자의 메신저 대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양상을 질적·양적으로 파악하고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적 변이 양상의 특징과 정도를 밝히고자 한다.

메신저 대화에 대한 연구는 문법의 여러 층위에서 관찰되는 메신저 대화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거나 화용론적으로 접근한 논의들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 메신저 대화를 음운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논의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음운적으로 메신저 대화를 살펴본 논의로는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사례를 살펴본 논의(강연임 2017; 허상희 2016·2017; 홍미주 2020 등)가 있었다. 그리고 메신저 말뭉치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을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논의(이향원·하영우 2021; 하영우 2022 등)가 있으나, 이 논의에서는 음운 약화나 활용형의 모음조화 변이에 해당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 변이의 전반이나 경향성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홍미주(2022)에서는 국립국어원 메신저 자료 중 10-20대 서울경기 여성 화자의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 양상을 질적·양적으로 살펴 메신저 대화에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 양상의 전반과 경향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10대-20대 메신저 대화를 대상으로 한 홍미주(2022)의 후속

연구로, 30-50대의 메신저 대화를 대상으로 음운적 변이 양상을 살펴보고, 양적 분석을 통해 음운적 변이의 실현 정도와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연령별 비교를 통해 연령에 따른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변이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는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 양상의 전반을 파악하고 음운적 변이의 실현 정도와 경향성, 연령별 음운 변이의 양상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2. 연구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국립국어원의 ‘모두의 말뭉치’에서 제공하는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2.0)’의 메신저 대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말뭉치는 대화 참여자의 성별, 연령, 직업, 출생지, 주성장지, 주거지, 친밀도, 연락 빈도, 대화 주제 등의 인구 통계 관련 정보와 대화 정보를 고려하여 수집된 자료로, 화자의 사회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언어적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메신저 대화 중 수도권 10-20대 여성 화자의 메신저 대화를 대상으로 한 홍미주(2022)²⁾에 이어, 메신저 대화의 연령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30-50대 여성 화자의 메신저 대화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립국어원 메신저 대화 중

- 1) 이 말뭉치는 2019년에 구축된 것으로, 10,083명의 화자가 참여한 7,395개의 파일에 메타 정보가 부착된 원시 말뭉치이다. 구축한 원시 말뭉치는 14,591,826개의 발화와 7,122,919회의 말차례 교체로 이루어진 712,291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국어원 메신저 대화 말뭉치의 화자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은 60.6%로 수도권 출신 화자들의 대화 비중이 높다. 국립국어원 메신저 대화의 참여자 중 10대 8.2%, 20대 54.3%, 30대 26.8%, 40대 6.4%, 50대 2.9%, 60대 이상 1.4%를 차지하고 있고, 성별로는 남성이 24.4%, 여성이 75.6%를 차지한다. 대화 제공자 중 20대 여성 화자의 비율이 42.6%로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 중 20대 여성 화자의 대화가 전체 대화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일섭 2019: 55).
- 2) 홍미주(2022)에서는 국립국어원 메신저 대화 중 출생지와 현거주지 모두 서울경기 지역이면서 친밀도 5의 관계에 있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대화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자료의 규모는 16,484개의 단위 문장이다. 홍미주(2022)에서는 30대 이상 여성 화자의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 30대-50대 여성화자의 대화 규모(18,509개의 단위 문장)와 비슷하도록 20대 여성 화자의 자료를 임의 추출하였다.

대화 참여자 둘 다 출생지와 현거주지 모두 서울경기 지역이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친밀도 5) 30대와 50대 여성의 대화 18,509개의 단위 문장³⁾을 대상으로 한다.⁴⁾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 변이 중 수의적 현상에 해당하는 음운 변이를 보이는 어형을 수집하고, 아래와 같이 음운변이형 관련 정보들을 엑셀 파일에 입력하여, 통계 처리를 위한 자료로 정리한다.

	A	B	C	D	E	F	G
1	파일	대화 원문	음운변이형	유형	음운	하위유형	형태정보
2	MDRW1900000929	가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교체	모음	오→우	조사
3	MDRW1900000929	그것도 봤는영	봤는영	첨가	자음	o	
4	MDRW1900000929	적금을 하자	하자	첨가	반모음	j	
5	MDRW1900001357	에이프라이틀리구 짜게올리구 난 계속바쁘네	틀리구	교체	모음	오→우	
6	MDRW1900001357	에이프라이틀리구 짜게올리구 난 계속바쁘네	올리구	교체	모음	오→우	
7	MDRW1900001357	글긴하지	글긴	탈락	모음		
8	MDRW1900006385	오 그래 역시	역쉬	첨가	반모음	w	
9	MDRW1900003599	오늘 출근했는데	했는데	교체	모음	오→우	
10	MDRW1900002546	하른 소스튜 좀 달라	하른	탈락	모음		
11	MDRW1900002546	하른 소스튜 좀 달라	소스튜	교체	모음	오→우	조사
12	MDRW1900002546	하른 소스튜 좀 달라	소스튜	첨가	반모음	j	조사

[그림 1]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변이 엑셀 입력 예시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분류하여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적 변이의 양상을 입력하고, 음운 변이와 관련된 형태 정보도 입력하여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다.⁵⁾ 하나의 음운변이형에 여러 변이 양상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현되는 변이의 유형을 모두 입력하여 빈도를 산출하였다.⁶⁾ 그 후 각 음운적 변이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 3) 최명원 외(2012)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단위 문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최명원 외(2012)에서 문장이 작성되어 전송키를 누르는 것을 하나의 문장 단위로 책정하였다.
- 4)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의 대화에는 띄어쓰기나 규범에 맞지 않는 표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대화의 의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 메신저 대화 원문과 맞춤법에 맞게 교정한 대화를 병렬적으로 제공하는 ‘국립국어원 맞춤법 교정 말뭉치’(‘모두의 말뭉치’에서 공개)의 메신저 대화 원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홍미주(202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5) 메신저 대화에서는 오타가 많이 나타나는데, 오타와 음운적 변이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사(역시)의 경우, ‘이’를 ‘아’로 교체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역시’의 단순 오타로 처리하고, 여러 화자에게 여러 번 등장하는 경우는 변이로 판단하였다.
- 6) 예를 들어, ‘아니구엽(아니고요)’의 경우, 교체-모음교체-오→우, 교체-모음교체-오→어, 첨가-자음첨가-ㅁ 총 3가지 음운 변이 유형을 입력하였다.

산출한 수치를 홍미주(2022)의 10-20대 여성 화자의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의 정도와 비교하여⁷⁾, 메신저 대화에서의 연령별 차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변이 양상

먼저 30-50대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나는 분석 대상 어형을 음운 변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실현 정도를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음운적 변이의 유형별 실현 정도

	빈도	비율(%)
교체	1333	43.8
탈락	1031	33.9
첨가	642	21.1
축약	38	1.2
합계	3044	100

전체 분석 대상 중 교체에 해당하는 예가 가장 많았고 축약에 해당하는 예는 제일 적었다. 교체는 모음 교체가 다수를 차지했고, 탈락은 반모음이 탈락하는 유형이 많았다. 그리고 첨가는 어말에 비음(ㄴ, ㄹ, ㅇ)이 첨가되는 것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축약은 모음축약에 해당하는 예가 소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음운적 변이의 유형별 실현 정도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10-20대 여성 화자의 대화와 큰 차이가 없었다.

7) 본고에서 언급하는 10-20대 여성 화자의 메신저 대화 자료와 수치는 홍미주(2022)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표 2〉 연령에 따른 음운적 변이의 유형별 실현 정도

	10-20대		30-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교체	1224	41.3	1333	43.8
탈락	892	30.1	1031	33.9
첨가	757	25.6	642	21.1
축약	88	3	38	1.2
합계	2961	100	3,044	100

3.1. 교체

3.1.1. 모음 교체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모음 교체의 종류는 총 18개로, ‘아, 어, 으, 오, 우, ऐ’에서 일어나는 교체와 움라우트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아

(1) 아→어

- ㄱ. 원래 쌍둥이 보다 연년생이 더 **힘들다자녀**
- ㄴ. **잘알어보성**

(2) 아→오

- ㄱ. 다들 시간이 **안맞오**

(3) 아→애

- ㄱ. **그럴꺼같애**

(4) 아→으

- ㄱ. 휴 **진쫌**

(1)~(3)은 메신저 대화에서 모음 ‘아’가 ‘어, 오, 애, 으’로 교체되어 표기된 예이다. ㄱ은 어미 ‘-아’가 ‘어’로 표기된 예이다. 이와 같은 어미 ‘아→어’의 교체는 서울경기 방언 및 충청방언 등 중부방언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

이다. (2)의 아→오는 음운론적 동기를 찾기 어려운 수의적인 교체로,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어미 ‘-아’에서 관찰되었다. (3)의 ‘갈애’에서 보이는 아→애 교체는 일상 구어에서 빈번히 실현되는 ‘갈-’의 활용형이다. 마지막으로 (4)의 아→으는 ‘진짜(진짜), 샬롱(사랑)’ 등에서 관찰되는데, 음운론적 동기를 찾기 어려운 수의적 교체이다.

2) 어

(5) 어 → 아

- ㄱ. 휴 **지가워**
- ㄴ. 오로라 보고**시빠**

(6) 어 → 오

- ㄱ. 죽어**버료**
- ㄴ. 1부2부 나뉘**져있오**

(7) 어 → 우

- ㄱ. 신행 어디로 **갈꾸니**
- ㄴ. 시작**해쑤** 뉴욕

(8) 어 → 으

- ㄱ. 몸에좋은건 맛이 **없어**
- ㄴ. 약돌한우축제도**하드라**

(5)-(8)은 모음 ‘어’가 ‘아, 오, 우, 으’로 교체되어 표기된 예이다. 이 중 (8ㄱ)은 장음이 수반된 중모음 ‘어’가 ‘으’로 실현되는 중부방언의 발음을 메신저 표기에서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위의 예 외에 ‘없다, 드럽다, 그지, 증말’ 등의 어형이 관찰되었다. (8ㄴ)은 ‘하드라(하더라), 그르자(그러자)와 같이 구어에서 널리 실현되는 비어두음절의 어→으의 예이다. 이 어→으를

제외한 나머지 교체는 실제 구어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3) 으

(9) 으 → 어

- ㄱ. 이때 서현 정자 이렇게 보고**있거당?**
- ㄴ. **영영** 나 오늘은 밥 싸왔어 ㅋ

(10) 으 → 오

- ㄱ. **고만사**
- ㄴ. 이궁 **고때** 켈 손 많이가고 힘들자녀

(11) 으 → 우

- ㄱ. 휴 배가 아직도 **아꾸넴** ㅠㅠ
- ㄴ. **지굽** 들어와따
- ㄷ. 그래서 그전날갈까? 하고**있눈뎡**
- ㄹ. **구래구래**

모음 ‘으’는 ‘어, 오, 우’로 표기되었는데, 이 중 (11ㄱ-ㄴ)은 평순모음 ‘으’가 선후행하는 순자음에 영향을 받아 원순모음 ‘우’로 실현된 것이다. 이런 원순모음화는 일상 구어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으로 실제 구어의 발음을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이와 달리 (11ㄷ-ㄹ)은 음운적 조건과 상관없이 ‘으’가 ‘우’로 교체된 것으로, 원순모음화가 실현된 예보다 더 빈번하게 메신저 대화에서 나타난다.

4) 오

(12) 오 → 어

- ㄱ. 생선구이 좋아하는지 **덜랐네**

www.kci.go.kr

ㄴ. 하루종일 일하는데 어케 **활기차**여

(13) 오 → 우

ㄱ. **글구 글두** 짬나게 **잘쓰**구

ㄴ. 애들어릴땐 잘먹고 잘싸기만**해**두 효도였는데

ㄷ. 인도서먹는 인도커리**별루**야?

ㄹ. **바부**

(12), (13)은 메신저 대화에서 ‘오’가 ‘어, 우’로 교체되어 표기된 예이다. (12ㄴ)의 보조사 ‘요’를 ‘여’로 실현하는 것은 서울말 여성 화자에게서 활발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12ㄴ)의 예들은 실제 구어 발음을 반영하는 것이다.⁸⁾

다음으로 (13)은 ‘오’가 ‘우’로 모음상승된 것을 반영한 예로, 중부방언에서 활발히 실현되는 고모음화가 반영된 예이다. 어미 ‘-고’와 ‘-어도’, 조사 ‘-도’ 등의 형식형태소와 부사와 명사와 같은 실질형태소에서 실현되는 오→우 교체를 관찰할 수 있다. 오→우는 주로 연결어미와 조사에서 관찰되었고, 명사, 부사 등 실질형태소에서의 교체 정도는 낮았다.

5) 우

(14) 우 → 오

ㄱ. **너모** 어색해

ㄴ. 아다 **잇고냥**?

(15) 우 → 으

ㄱ. **뽀빠너**뜨먹고싶어

8) 서울말 코퍼스를 대상으로 한 양병곤(2017)에 따르면 여성이 음절말의 ‘요’를 ‘여’로 발음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양병곤 2017: 27).

‘우’가 ‘오’나 ‘으’로 교체된 것은 음운론적 동기를 찾기 어려운 수의적인 현상으로, 그 출현 정도가 높지 않다.

6) 에 → 이

(16) ㄱ. 세금 꼬박꼬박 **떠니까**

ㄴ. 기저귀도 이젠 **떼야하는디..**

에→이는 어휘 내부, 어미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현되는데, 대상 자료에서는 주로 어미 ‘-는/은테’에서 관찰되었다.

7) 움라우트

(17) ㄱ. 강변역 잉어빵 냄새 **죽인다**

ㄴ. **엉텅이** 벗고 앉으면 뭐가 좀 이상한가봐

(17)은 후행음절의 모음 ‘이’에 선행음절의 후설모음이 동화되어 전설모음으로 실현되는 움라우트 현상의 예이다. 메신저 대화에서도 움라우트형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 정도는 높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음 교체를 유형별로 나누어 실현 정도가 높은 순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세부 교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오→우인데, 서울경기를 포함하는 중부방언에서, 특히 여성에게서 활발히 실현되는 것으로, 서울경기 여성 화자들의 일상 발음이 메신저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다양한 모음교체의 변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교체를 몇 개의 범주로 묶어 보면, 모음상승, 평순모음→원순모음, 원순모음→평순모음, 전설모음화, 순행·역행 원순모음화, 모음하강, 그리고 어미 ‘-아’→‘애’와 같이 묶을 수 있다. 이렇게 범주를 묶어 실현 정도를 살펴보면 <표 3>과 <표 4>와 같다.

www.kci.go.kr

〈표 3〉 30-50대 모음 교체의 범주별 실현 정도

모음교체 분류	세부 유형	비율(%)
모음 상승	아→어 어→으 오→우 에→이 아→으	55.5
평순→ 원순모음	아→오 어→오 어→우 으→오 으→우	26.9
원순→ 평순모음	오→어 우→으	3.7
전설모음화	움라우트	4.7
원순모음화	순행원순모음화 역행원순모음화	1.0
아→에	아→에	1.2
모음 하강	어→아 으→어 우→오	6.9
합		100

이제 모음교체의 양상을 연령별로 살펴보기 위해 10-20대와 30-50대의 실현 정도를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연령에 따른 모음 교체의 유형별 실현 정도

모음 교체 유형	10-20대		30-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오→우	358	33.4	482	42.9
어→오	135	12.6	117	10.4
아→어	108	10.1	47	4.2
으→우	276	25.7	168	15.0
어→으	39	3.6	73	6.5
아→오	23	2.1	8	0.7
오→어	18	1.7	39	3.5

움라우트	18	1.7	53	4.7
어→우	16	1.5	5	0.4
에→이	14	1.3	15	1.3
원순모음화	14	1.3	11	1.0
아→애	11	1.0	13	1.2
으→오	4	0.4	5	0.4
어→아	4	0.4	5	0.4
으→어	35	3.3	70	6.2
아→으			7	0.6
우→오			3	0.3
우→으			2	0.2
합	1,073	100	1,123	100

먼저, 관찰되는 세부 유형에서 차이가 난다. 30-50대에서는 10대-20대에 서 나타나지 않았던 아→으, 우→으, 우→오가 관찰되어, 30-50대 메신저 대화에서 모음교체의 유형이 조금 더 많았다. 10-20대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모음 교체의 종류는 총 15개로, ‘아, 어, 으, 오, 에’에서 일어나는 교체와 움라우트였다. 30-50대 대화에서는 18개로, ‘아, 어, 으, 오, 에’에 더해 ‘우’가 교체되는 예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형별 교체 정도를 살펴보면, 두 연령대 모두 오→우가 세부 교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으→우인 것은 같았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30-50대가 10대-20대보다 오→우의 정도가 조금 높았고, 으→우, 아→어의 정도는 10-20대가 30-50대보다 조금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개별 교체를 범주로 묶으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두 연령대 모두 모음 상승에 해당하는 교체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평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교체한 것은 더 낮은 연령대에서 더 활발하였다. 10-20대의 모음 교체는 거의 대부분이 모음상승과 평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교체하는 것이 차지한 데 비해, 30-50대는 10-20대보다 평순→원순모음의 교체 정도는 낮고 그 외의 다른 유형의 교체들이 골고루 관찰된다.

〈표 5〉 연령에 따른 모음 교체의 범주별 실현 양상

모음교체의 분류	10-20대	30-50대
모음 상승	48.4	55.5
평순→원순모음	42.3	26.9
원순→평순모음	1.7	3.7
전설모음화	1.7	4.7
원순모음화	1.3	1.0
아→애	1.0	1.2
모음 하강	3.7	6.9
합	100	100

3.1.2. 자음 교체

1) 어두경음화

(18) ㄱ. 네 그거 가격이 **쌌**데

 ㄴ. 나이는 **꺼꾸로** 먹어 아주

(18)은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표기한 예로 이와 같은 어두경음화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실현 정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이호영 2009, 한명숙 2011), 일상 구어에서 빈도 높게 실현되는 발음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일상 구어에서 활발히 실현되는 어두경음화형이 메신저 대화에서도 관찰되는데,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자음 교체 중 절반 정도가 어두경음화형이다.

2) 역구개음 표기

(19) ㄱ. 역시 사람이 맘 착하게 **살아야**디

 ㄴ. 저런 개떡같이 **말하디**마라

 ㄷ. 그림**그로**티

 ㄹ. **미려**따

 ㅁ. 가스 **소등**한데

www.kci.go.kr

비. 화담숲가다

사. 점심에**대통**먹고 저녁 푸짐히 먹으려 했지만

위의 (19)은 ‘[사라야지], [말하지], [그러치], [소중한데], [가자], [대충]’의 ㄷ 과 ㅅ 이 ㅌ 과 ㄷ 으로 표기된 것이다. ㄱ - ㄹ 은 ‘이’ 모음 앞에 위치하는 ㄷ 과 ㅅ 이 ㅌ 과 ㄷ 으로 교체된 것으로 이는 구개음화의 도출과정과 역으로 실현되는 양상이다. 주로 모음 ‘이’ 앞에서 ㄷ 과 ㅅ 이 ㅌ 과 ㄷ 으로 교체하는 예가 많았으나 ㅁ - ㅅ 와 같이 모음 ‘아, 우’ 앞에서도 ㄷ 과 ㅅ 이 ㅌ 과 ㄷ 으로 교체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반모음 j 를 첨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당 자료에서 관찰되는 ㄷ 과 ㅅ 이 ㅌ 과 ㄷ 으로 표기하는 것은 모음 ‘이’나 반모음 ‘ j ’ 앞에서 나타난다. ㄷ , ㅌ 이 모음 ‘이’와 반모음 j 앞에 위치할 수 없다는 음소배열 제약이 한국어에 있지만 이 제약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어형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3) $\text{ㅃ} \rightarrow \text{ㅌ}/\text{ㅉ}$

(20) 가. **ㅍㅍㅍㅍ 속망하네**

나. 한무더기**남아또!**

다. 이사간다음으로 **애기해찌** ㅋㅋ

(20)의 예들은 발음 ㅃ 을 ㅌ 과 ㅉ 으로 표기한 것으로, 대부분 ‘있-, -았/었-’의 ㅃ 이 ㅌ 또는 ㅉ 으로 교체되었다. ㅌ 과 ㅉ 중 ㅃ 이 ㅌ 으로 교체되는 예가 더 많았다. 이와 같이 ㅃ 이 ㅉ 이나 ㅌ 으로 교체되는 것은 어린 아이의 발음과 비슷하게 하여 귀여운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4) $\text{ㄴ} \rightarrow \text{ㅇ}$

(21) 가. 그래서 내가 1주일씩만 갈라고 **한겨겨등**



ㄴ. 난 3개 산거 미리 쓰고 있어서 잊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한개 더 받을게 있었잖아

ㄷ. name3가 세면대에서 **미칭놈**이 감았대

ㄹ. 다 **부지런해**

(21)은 ‘-거든, -는데, -(으)ㄴ, 부지런하’에 포함된 ㄴ이 ㅇ으로 교체된 예이다. 주로 조사나 어미에 포함된 ‘는/(으)ㄴ’의 ㄴ이 ㅇ으로 교체되었다. 이와 같은 교체는 음운론적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환경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주로 ㄴ이 포함된 어미나 조사에서 관찰된다. 이는 메신저 사용자가 음절 종성 위치에서 ㄴ보다 ㅇ을 선호하거나 원래의 어형과는 다르게 표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한국어 자음의 강도 서열과 관련지어 보면, 한국어에서 실현되는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 등의 조음위치 동화의 양상을 통해 우리말 자음의 강도 서열을 [치조음, 경구개음 < 양순음 < 연구개음]으로 매길 수 있다(이문규 2009: 214). 이와 같은 강도 서열에 따르면 자음의 강도가 센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메신저 대화에서 어말에 ㅇ을 첨가하는 비율이 다른 자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거나, ㄴ→ㅇ 교체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말 자음의 강도 서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5) 연구개음화

(22) ㄱ. 옛 우리아빠랑 **칭구칭구**인데

ㄴ. 칼칼해지**눔**게 ㅋㅋ

후행하는 연구개음에 동화되어 ㄴ이 ㅇ으로 실현되는 연구개음화의 예이다. 연구개음화가 적용된 표기는 어휘 내부(ㄱ)와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경우(ㄴ) 등 두루 관찰된다. 4)에서 살펴본 ㄴ→ㅇ 교체와 달리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교체이다.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 둘 다 조음위치 동화에 속하는 것으로, 메신저 대화에서 (22)와 같은 연구개음화형은 관찰되지만 양순음화형에 해당

하는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개음화는 일상 구어의 비격식 대화에서 자주 실현되는 것이지만 메신저 표기에서 빈도 높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6) 기타 교체

(23) 가. 제주하늘 **초큼** 흐리지만 파람

나. 휴 아직도 배가**아빠**..—

드. 아오 나올라**면 뽀니**나와

(23)은 그 실현 정도가 매우 낮고 특정 단어에 국한하여 관찰되는 교체라서 한 자리에서 같이 다루도록 한다. (23가)은 평음을 격음으로, (23나)은 표음 ㅁ으로 교체한 것이다. 그리고 (23드)은 ‘뽀리’를 ‘뽀니’로 표기한 것인데, 르르을 ㄴㄴ으로 교체한 것은 ‘뽀리’ 한 단어에 국한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뽀니’는 교체라기보다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뽀리’의 이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음 교체의 유형과 양상을 연령대로 빈도와 비율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6〉 자음 교체의 유형별 실현 정도

자음 교체 유형	10-20대		30-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어두경음화	79	52.3	100	47.6
역구개음 표기	31	20.5	19	9.0
ㅃ→ㅍ/ㅍ	21	13.9	29	13.8
ㄴ→ㅇ	14	9.3	16	7.6
연구개음화	6	4	22	10.5
ㅍ→ㅃ			4	1.9
격음화			4	1.9
르르→ㄴㄴ			16	7.6
합	151	100	210	100

두 연령대에서 눈에 두드러진 차이는 30-50대에 메신저 대화에서 더 다양한 자음 교체의 유형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빈도가 매우 낮기는 ㅍ→ㅃ, 격음화형, ㄹㄹ→ㄴㄴ은 30-50대에서 관찰된다. 하지만 두 연령대 모두 자음 교체의 절반 정도가 어두경음화형으로, 어두 평음을 경음으로 실현하는 일상 구어 발음을 메신저 대화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역구개음 표기는 연령대가 더 아래인 10-20대에서 정도가 높다. 이에 반해 연구개음화가 적용된 어형은 30-50대에서 그 정도가 조금 더 높았다.

이상에서 논의한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적 변이를 정리해 보면 교체의 상당수가 모음에 해당하는 교체이고(<표 7>), 모음 교체 중 오→우 교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10-20대 메신저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였다.

<표 7> 연령에 따른 음소별 교체 정도

교체	10-20대		30-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음	151	12.3	210	15.8
모음	1073	87.7	1123	84.2
합	1,224	100	1,333	100

3.2. 첨가

3.2.1. 자음 첨가

- (24) 가. 다른 빨래도 두세개 **넣었는데**
 나. 난 **출근중이야**
 다. **편리하단**난
 라. **일어나랏**
 마. 그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누가가**음!!!**
 바. 2시간**남았췌**효

ㅅ. 이제 몸에 좋은거 **먹을려구** 해

ㅇ. **도잘라서** 소주에 오미자...ㅋㅋ

(24)는 자음이 첨가된 것으로, (21ㄱ)-(21ㅇ)은 어말에 ‘ㅇ, ㅁ, ㄴ, ㅅ, ㅂ, ㅎ’이 첨가된 예이다. (21ㅅ)-(21ㅇ)은 ㄹ이 첨가된 예로, ㄹ 첨가는 주로 어미 ‘-(으)려고/려면’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ㄹ’ 첨가형은 구어에서 빈도 높게 관찰되는 것으로 메신저 대화에서 이러한 구어형이 반영되어 있는 예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첨가되는 자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ㅇ으로, 비음 ㅇ, ㅁ, ㄴ 중 메신저 사용자들은 ㅇ 첨가를 가장 선호한다. 비음 중에서도 ㅇ 첨가의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표 8〉 연령에 따른 첨가 자음의 실현 정도

첨가 자음	10-20대		30-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ㅇ	469	83.9	387	82.0
ㅁ	32	5.7	45	9.5
ㄴ	4	0.7	5	1.1
ㅅ	19	3.4	12	2.5
ㅂ	10	1.8	5	1.1
ㄹ	25	4.5	15	3.2
ㅎ			3	0.6
합	559	100	472	100

자음 첨가 양상에서 연령별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10-20대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가는고햐, 남았쉬효’ 등과 같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ㅎ을 첨가한 예가 30-50대에서는 관찰되었다.

3.2.2. 모음 첨가

- (25) 가. 그냥 집으로 **간드아**
 나. 우리도 **출바루**
 다. 잠옷인데 먼지도 **접내** 물어
 르. 벌써 저녁! **퇴근시간입니다아아~**
 마. **쫄오오금?**

모음 첨가는 (25가-나)과 같이 모음 ‘으’, ‘우’를 첨가하거나 ㄷ에서와 같이 어말에 ‘ㅣ’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모음첨가의 대부분은 르-마과 같이 선행 음절의 모음과 동일한 모음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아래 표).

〈표 9〉 모음 첨가의 유형별 실현 정도

모음 첨가	30-50대	
	빈도	비율(%)
동일 모음	25	69.4
어말 ‘ㅣ’	8	22.2
으	2	5.6
우	1	2.8
합	36	100

동일 모음의 첨가는 일상 구어에서 표현적 장음으로 실현되는 장음을 표현하거나 강조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⁹⁾ 이렇게 동일 모음을 첨가하는 것은 음절의 길이가 연장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음절의 길이가 연장되고 입력하는 문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도에 어긋나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의도를 효과적으

9) 표현적 장음을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 동일 모음을 추가하는 것 외에 ~를 활용하기도 한다. (예: 근데 날씨가 진~~~짜 덥더라구요, 맛 드~~럽게 없어, 그 사이사람이얼~~~ 마나 변하는데 ㅋㅋ)

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3.2.3. 반모음 첨가

(26) 가. 좀만 더 하구 **퇴근하자**

나. 기름 **튀자나**

다. 오 그래 **역쉬**

르. 삶이 척박한 **쇠람**이야

가-나 은 반모음 *j*, 다-르 은 반모음 *w*가 첨가된 예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메신저 대화에서 반모음 *j*와 *w* 중 *j*가 첨가되는 정도가 더 높다.

〈표 10〉 30-50대 반모음별 첨가 정도

반모음 첨가	빈도	비율(%)
<i>j</i>	97	72.4
<i>w</i>	37	27.6
합	134	100

반모음 *j*는 *스*, *버*, *디*, *기*, *ㅎ*, *니*, *미*, *시*, *리* 등 다양한 자음 뒤에서 첨가되고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주로 *스* 다음에 첨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하자, 마져, 중’ 등은 구어에서 발음되지는 않지만 메신저 대화에서 빈번히 관찰된다.

w 첨가는 ‘이썬, 멀어썬’와 같이 어미 ‘-어’일 경우와 ‘역쉬, 취킨’과 같이 ‘자음+이’가 포함된 실질형태소일 경우에 ‘어’와 ‘이’ 앞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높았다.

첨가되는 *j*의 선행 자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보듯이 30-50대에서 *j*가 첨가되는 선행자음의 종류가 더 많다. 두 연령대 모두 *스*계 자음 뒤에서 첨가되는 비율이 높고, 그 외의 자음들의 실현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30-50대에서는 *스*계 자음, *미*, *리* 뒤에서도 *j*가 첨가되는 양상을 보

인다.

〈표 11〉 선행하는 자음별 j 첨가 정도

첨가되는 j의 선행 자음	10-20대		30-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ㅅ/ㅆ/ㅈ	80	74.1	62	63.9
ㄷ/ㄸ	13	12.0	20	20.6
ㄱ/ㄲ	10	9.3	4	4.1
ㄴ	3	2.8	3	3.1
ㅂ/ㅃ	1	0.9	1	1.0
ㅇ	1	0.9	0	0.0
ㅈ/ㅉ			4	4.1
ㅊ			2	2.1
ㄹ			1	1.0
합	108	100	97	100

이상에서 살펴본 음소별 첨가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첨가되는 음소는 자음이고 모음의 첨가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12〉 연령에 따른 첨가 음소의 실현 정도

첨가 음소	10-20대		30-5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자음	559	73.8	472	73.5
모음	54	7.1	36	5.6
반모음	144	19.1	134	20.9
합	757	100	642	100

3.3. 탈락

(27) ㄱ. 나오늘도들**ㅂ**았어

www.kci.go.kr

- 나. **일요일**은교회가잖아
- 다. **글서** 거버 퓨래 사왔어
- 르. **강** 먹는게지
- 미. 어릴땐 그제 **왜케** 맛있었는지
- 비. 먹어**바** 진짜
- 스. 베트남**가**른 커피나 사와

ㄱ-ㄷ은 ‘드라마’의 ‘아’, ‘일요일’의 ‘이’, ‘그래서’의 ‘애’가 탈락한 것이고, 르은 모음 ‘으’와 ‘ㄴ’이, 미은 ‘이러’, 비-스은 반모음 w와 j가 탈락한 것이다. 이처럼 자모음과 반모음이 탈락하거나 음절이 탈락한 예가 다양하게 관찰된다. 이렇게 분절음과 음절이 탈락하면서 음절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탈락을 통한 음절 수의 축소는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메신저 공간에서 문자 입력에 들어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로 음절 수의 축소가 일어나게 된다. 이처럼 말이나 글을 축소하는 언어의 단형화 현상은 언어 사용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간, 노력, 표기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경제적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석주 2005).

3.4. 축약

두 개의 음소가 한 개로 줄어드는 축약은 해당 자료에서 가장 낮은 비율로 관찰되었다.¹⁰⁾

- (28) ㄱ. 그래서**물까**
- 나. 건투를 빌어**조**

10) 축약 중 자음축약은 ‘어께(어떻게), 그치(그렇지)’와 같이 ‘ㅎ’과 선후행하는 평장애음과 축약되어 격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그 예인데, 이 격음화는 음운론적 환경이 구비되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수의적인 교체를 다루는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음축약의 예만 다루도록 한다.

위의 예는 ‘위(wə)’가 ‘오(o)’로 축약되어 ‘뫼’를 ‘모’로, ‘쥬’를 ‘조’로 표기한 예이다. 연구대상 메신저 대화에서는 ‘뫼’를 ‘모’로 표기하는 예가 모음축약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이중모음 ‘위’를 단모음 ‘오’로 표기한 예는 일상 구어에서 발화되는 발음을 메신저 대화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20대에서 축약의 정도가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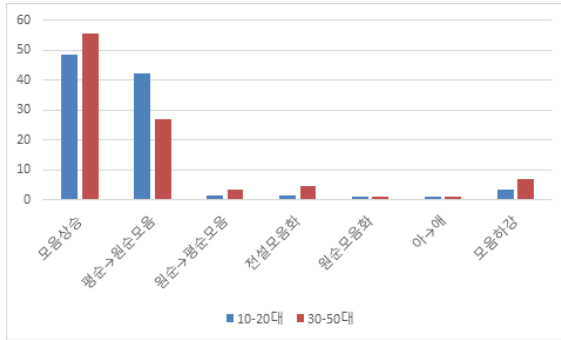
〈표 13〉 연령별 모음 축약 빈도

모음축약	10-20대	30-50대
	88	38

4.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변이의 특징과 연령별 변이 양상

4.1. 모음상승과 원순모음화 지향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 변이 중 교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모음 교체의 비중이 크고 유형도 다양하였다.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모음 교체 중 모음 상승과 원순모음화를 지향하는 교체의 정도가 높았다.



[그림 2] 연령에 따른 모음 교체의 범주별 실현 양상

특히 모음상승에 해당하는 모음교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메신저 대화의 화자가 중부방언 여성 화자이기 때문이다. 오→우, 아→어, 어→으, 에→이 등의 모음변이는 모음상승이 기제가 되어 일어나는 교체로 중부방언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¹¹⁾ 또한 여성 화자의 대화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 화자에게서 실현 정도가 높은 오→우 교체가 메신저 대화에서도 빈도높게 관찰되었다.

비어두음절의 ‘오’가 모음상승에 의해 ‘우’로 실현되는 변화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방언을 중심으로 일어났다(강희숙 2002: 175-176). 이와 같은 오→우 교체는 체언을 제외하고 실질형태소(부사)와 형식형태소(연결어미, 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실현되는 현상이다(윤은경 2020). 메신저 대화에서 오→우는 주로 연결어미와 조사, ‘그리고, 그래도’ 등의 접속부사에서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그리고 ‘맞어, 알아’와 같이 어미 ‘아’가 ‘어’로 교체되는 것도 중부방언의 특징이다. 이 교체는 서울경기 방언 및 충청방언 등 중부방언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변이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주로 어두 위치의 장음을 수반하는 ‘어’가 ‘으’로 실현되어 ‘그지, 읊다, 증말’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니, 띠주고, 근디’ 등에서 보이는 ‘에’가 ‘이’로

11) 이 교체들은 모음상승이 기제가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ㅕ→ㅣ, ㅛ→ㅟ, ㅜ→ㅞ, ㅝ→ㅠ와 같은 모음상승은 조음상 개구도를 좁혀 발음상 노력을 절약하려는 자생적인 변이로 파악할 수 있다 (김정태 2006: 15).

실현되는 변화는 주로 남부방언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였으나 중부방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 이 변화 역시 주로 어두 위치의 장음절 환경에서 실현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희숙 2002:180). 메신저 대화에서 ‘니, 띠주고, 근디’ 등의 어형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어형은 이상의 변이에 비해 출현 정도는 낮다.

4.2. 구어 발음을 반영하는 변이와 메신저 장르 특유의 변이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변이형들은 구어의 발음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구어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 또한 다수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메신저 대화에서 구어의 발음을 반영하면서도 메신저라는 장르에서 사용되는 특유의 음운적 변이 또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구어의 발음이나 중부방언의 음운적 양상들이 메신저 대화에 반영되어 있다. 메신저 대화의 참여자가 서울경기 지역 화자이므로 중부방언의 방언적 특징이 메신저 대화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중부방언적 요소는 아니지만 반모음의 탈락, 보조사 요→어 어두경음화 등 실제 발화에서 실현되는 구어적 발음이 같이 관찰된다. 그리고 구어에서 실현되는 표현적 장음을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 동일모음을 반복해서 첨가하는 것도 구어의 특징을 반영하는 예이다.

(29) 실제 구어 발음의 반영

- ㄱ. **맞어**ㅋㅋ
- ㄴ. 진짜라서 가격이 **싼**거야?
- ㄷ. 가격은 **나두**몰라
- ㄹ. 미친사람**아니**에여..
- ㅁ. **프렌밀리** 검색해**바바**

(30) 표현적 장음의 문자적 표현

- ㄱ. **쫘오오**금?..

www.kci.go.kr

다음으로 구어에서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 정도가 매우 낮아서 메신저 대화라는 장르에서 특유하게 실현되는 변이 또한 관찰된다. 다양한 음운변이가 사용되는 기제를 입력의 경제성 추구, 의미의 강조, 어형의 변형을 통한 재미 추구, 공손성의 표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1) 입력의 경제성 추구

- ㄱ. **글서** 거버 푸래 사왔어
- ㄴ. 헐 그럼 저녁은 **강** 와퍼 먹은걸로 끝이야?
- ㄷ. **하튼** 소스듀 좀 달라

(32) 강조

- ㄱ. 오 그래 **역쉬**
- ㄴ. **다버렸!!!**

(33) 어형의 변형

- ㄱ. 난 지금 토다이**간다**
- ㄴ. 휴 아직도 배가**아팠..**—
- ㄷ. 오늘 출근**했는데**
- ㄹ. 그럼**그로티**

(34) 공손성의 표현

- ㄱ. 편한대로 해 대신 미리 **말해줘** ㅋ.ㅋ

(31)의 ‘글서, 강’은 분절음 탈락으로 음절축소가 일어난 예로, 구어의 발음을 반영했다기보다 문자 입력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자를 입력하여 대화를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메신저 공간에서 대화를 원활하고 실시간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¹²⁾

12) 이향원·하영우(2021)에서도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무튼(아무튼)’, ‘강(그냥)’ 등의 음운약

그리고 (32)의 경우, 음소를 첨가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기도 하고, 교체나 첨가 등을 통해 어형의 변화를 피하여 새로움이나 재미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문자로 이루어지는 비대면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말하기 전략의 하나로 음운변이형을 사용하여 친밀감, 귀여움, 부드러움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메신저 대화는 기본적으로 문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말에서 말하기 전략으로 사용되는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고, 의미 변별에 관여하고 태도를 표현하는 음상이나 억양 등의 비분절적 요소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대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변이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금지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버려’의 어말에 ㅅ을 첨가하거나, ‘말해줘’와 같이 부탁을 좀 더 부드럽게 하거나 친밀하게 말하기 위해 어말에 ㅇ을 첨가하는 방식이다.

4.3.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변이의 연령별 양상

10-20대와 30-50대의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양상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¹³⁾ 두 연령대 모두 교체의 정도가 높고 그 중에서도 모음교체의 정도가 높고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차이를 보였다.

첫째, 30-50대 대화에서 모음 교체와 자음 교체, 모음 첨가와 자음 첨가의 유형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30-50대 메신저 대화에서는 10-20대 대화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교체와 첨가 유형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낮다.

둘째, 모음 교체 중 평순모음→원순모음에 해당하는 교체가 10-20대에서

하나 감쇄형태가 구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구어성이 강한 문어 사용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메신저’라는 대화 기반 텍스트 사용역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이향원·하영우 2021: 145).

13) 이는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국립국어원 메신저 발음치의 자료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는데, 국립국어원 메신저 발음치 대화 제공자가 20대, 30대 여성의 비중이 높고 화자의 대부분이 학생이거나 사무직 종사자라는 비교적 비슷한 특징을 공유한 집단이기 때문에 언어적 양상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수 있다. 아울러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언어적 양상이 연령과 무관하게 메신저 장르에서 특유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령 구분을 다르게 하여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10-20대의 모음 교체는 거의 대부분이 모음 상승과 평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교체하는 것이 차지한 데 비해, 30-50대는 10-20대보다 평순→원순모음의 교체 정도는 낮고 그 외의 다른 유형의 교체가 풀고루 관찰되었다.

셋째, 모음축약이 10-20대에서 그 정도가 높았다.

5. 결론

본고는 30-50대 서울경기 여성 화자의 메신저 대화에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 양상을 파악하고, 그 경향성과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10대-20대 화자의 음운적 변이 양상을 비교하여 연령에 따른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변이 양상의 특징을 살피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메신저 말뭉치를 대상으로 음운적 변이 양상을 교체, 첨가, 탈락, 축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양적인 방법으로 실현 정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30-50대 메신저 대화는 음운 변이 중 교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모음 교체의 비중이 크고 유형도 다양하였다. 그리고 모음 교체 중 모음 상승과 원순모음화를 지향하는 교체의 정도가 높았다.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변이형들은 구어의 발음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구어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 또한 다수 관찰되었다. 메신저 대화가 구어의 발음을 반영하면서도 메신저라는 장르에서 사용되는 특유의 음운적 변이 또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20대와 30-50대의 메신저 대화의 음운적 양상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차이를 보였다. 30-50대 대화에서 모음 교체와 자음 교체, 모음 첨가와 자음 첨가의 유형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고, 모음 교체 중 평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교체하는 변이가 10-20대에서 더 활발하게 관찰되었다. 10-20대의 모음 교체는 거의 대부분이 모음상승과 평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는데, 30-50대는 10-20대보다 평순모음을 원순모음으로 교체하는 정도가 낮고 그 외의

다른 유형의 교체들이 골고루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적 변이의 양상과 경향과 함께 메신저 대화라는 문어가 갖는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메신저 대화의 화자가 음운적 변이를 사용하는 의도와 기제를 파악하고, 이 음운적 변이형을 다른 참여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메신저 대화에서 관찰되는 음운적 변이의 실현 기제와 사용 양상을 더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메신저 대화의 생산과 수용 측면에서 메신저 사용자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연임(2017), 〈카카오톡 메신저의 소통 양상과 사회언어학적 특성〉, 《어문연구》 92, 5-37, 어문연구학회. Gang, Y. I. (2017). An communication aspect of 'KakaoTalk' conversation and its sociolinguistic feature. *Journal of the Research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92, 5-37.
- 강희숙(2002), 〈'천변풍경'의 음운론〉, 《국어학》 40, 171-194, 국어학회. Gang, H. S. (2002). A phonological analysis of Cheonbyeonpunggyeong. *Korean Linguistics*, 40, 171-194.
- 김정태(2006). 〈충남방언 활용에서의 음성모음화〉, 《어문연구》 51, 279-299, 어문연구학회. Kim, J. T. (2006). Negative vowelization of the conjugation in Chungnam dialect. *Journal of the Research Society of Language and Literature*, 92, 279-299.
- 박일섭(2019), 〈메신저 대화 자료 수집 및 말뭉치 구축〉, 국립국어원. Park, I. S. (2019). *Instant messaging chat data collection and corpus constructi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양병곤(2017), 〈서울코퍼스의 성별·연령 집단별 말 어절 모음에 나타난 음운변동〉, 《말소리와 음성과학》 9(2), 23-29, 한국음성학회. Yang, B. G. (2017). Phonological processes of vowels in pronounced phrasal words of the Seoul Corpus by gender and age groups.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9(2), 23-29.

- 윤은경(2020), <어말 위치 /ㄱ/의 /ㄷ/ 대체 현상에 대한 문법 항목별 출현빈도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12(1), 33-42, 한국음성학회. Yoon, E. K. (2020). Frequency of grammar items for Korean substitution of /u/ for /o/ in the word-final position.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12(1), 33-42.
- 이문규(2009),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Lee, M. K. (2009). *Hyeondae gugeo eumullon*. Hankookmunhwasa.
- 이석주(2005), <현대 국어의 단형화(短形化) 현상 - 음절의 생략과 축약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8, 267-279, 이중언어학회. Lee, S. J. (2005). A study on shortened forms of modern Korean language. *Bilingual Research*, 28, 267-279.
- 이향원·하영우(2021), <구어적 문어의 구어성에 관하여: 음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사회》 제42호, 121-148,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Lee, H. W., & Ha, Y. W. (2021). A study of orality of colloquial written language: with focus on phonological aspects. *Language & information society*, 42, 121-148.
- 이호영(2009), <서울 토박이들의 경음화 선호도>, 《말소리와 음성과학》 1(2), 151-162, 한국음성학회. Lee, H. Y. (2009). Tensification preference of native Seoul speakers of Korean.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1(2), 151-162.
- 최명원·김선영·김지혜·이애경(2012), <SNS 메신저 '카카오톡' 언어현상 연구>, 《텍스트언어학》 33, 469-49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Choi, M. W., Kim, S. Y., Kim, J. H., & Lee, A. K. (2012). A study of Linguistic phenomena of SNS Messenger KakaoTalk. *Textlinguistics*, 33, 469-495.
- 하영우(2022), <활용형의 모음조화 양상과 변이 - 메신저 말뭉치를 중심으로 ->, 《영주어문》 51, 81-102, 영주어문학회. Ha, Y. W. (2022). A study of vowel harmony and rule variations for conjugated form. *Yeongju Literary Society*, 51, 81-102.
- 한명숙(2011), <대학생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 및 인지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46, 329-370, 겨레어문학회. Han, M. S. (2011). College students' word-initial glottalization and perception. *Journal of Korean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46, 329-370.
- 허상희(2016), <대학생의 카카오톡 언어 사용 분석>, 《한글》 314, 103-143, 한글학회. Hur, S. H. (2016). The language use of university students in KakaoTalk. *Han-Geul*,

314, 103-143.

- 허상희(2017), <대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카카오톡 사용양상 분석>, 《한민족어문학》 76, 163-199, 한민족어문학회. Hur, S. H. (2017). An analysis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use by gender in KakaoTalk. *Hanminjogeorunhakoe*, 76, 163-199.
- 홍미주(2020), <카카오톡 대화의 음운적 특징과 음운변이형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연구>, 《한글》 329, 787-825, 한글학회. Hong, M. J. (2020). A study of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ragmatic functions of phonological variants in KakaoTalk conversations. *Han-Geul*, 329, 787-825.
- 홍미주(2022), <메신저 대화에 나타나는 음운적 변이 양상과 특징>, 《한말연구》 63(21), 1-23, 한말연구학회. Hong, M. J. (2022). A study on phonological variation patterns and features in messenger conversations. *Korean Language Research*, 63(21), 1-23.